## 광주교육청 "25일까지 5·18교육주간"

오늘 민주묘지 참배…효덕초 등 3곳 추모비에도 헌화 오월 사적지 걷기·문화제 등 추모···학교별 기념행사도

광주시교육청이 5·18민주화운동 44 주년을 맞아 7-25일 3주간 '5·18교육주 간'을 운영, 추모 열기를 더한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제44주 년 5·18민주화운동 교육주간은 7일 오 전 9시 시교육청·산하기관 간부 등 교 육가족 50여명과 함께 국립5·18민주 묘지를 찾아 공식 참배하면서 시작된

이정선 시교육감은 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학생 희생자가 있는 광주효덕초 (당시 4학년 전재수), 광주서광중(당 시 3학년 김명숙), 광주동성고(당시 1 께 할 수 있는 5·18사적지 걷기 축제 (11

학년 문재학·안종필, 2학년 이성귀) 등 3개 학교의 추모비(석)에 헌화하고 묵

념할 예정이다. 희생자 추모 행사도 진행된다.

5·18 행불자 이창현 (당시 초등학교 1 학년)군의 명예졸업장이 오는 17일 오 전 10시30분 광주양동초에서 수여된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3명의 학생 희생자가 있는 광주동성고등학교에서 이정선 시교육감이 '5·18정신 전국을 넘어 세계로!'란 주제로 특강한다.

학교의 담을 넘어 교육 공동체가 함

일 오전 8시30분), 5·18청소년 문화제 (2 5일 오후 1시) 등도 전개된다.

시교육청은 올해 5·18교육주간을 ▲ 다. 5·18교육 내실화 ▲5·18교육 전국화 ▲ 5·18교육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5·18교육 내실화를 위해 각 학교에서 학생회가 주축이 된 5·18 기념행사 실 시를 권장하고 이를 위해 학교 당 학급 수에 따라 50만-80만원의 예산을 지원

또 5·18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가치와 체험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인정교과서, 전 시자료, 교육자료 '꾸러미'를 구성해 보 급한다. 해당 자료들은 신청을 통해 선 정된 광주와 전국 학교에 배부된다.

각 학교에서는 5·18 관련 수업과 함

께 5·18 역사 왜곡 바로 알기, 사적지 답 사, 골든벨, 학생 연극제 등을 진행한

이정선 시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은 불의에 저항한 시민들의 위대한 항 쟁으로 미래세대에 계승돼야 하는 숭 고한 정신"이라며 "광주의 시대정신인 민주와 인권, 평화와 공동체 가치를 전 국으로,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18교육주간에 실시되는 교육 활동 중 체험활동 우수 학생을 선정해 시상하는 이벤트도 이뤄진다. 시상 분 야는 그림, 포스터, 글쓰기, 만화, UCC 5개 영역이며 참여 방법은 광주시교육 청 민주인권교육센터 참여마당 5·18체 험갤러리에 자율적으로 등록하면 된 /김다이 기자



## 우치동물원 사슴사 새단장

광주 우치동물원이 철조망으로 둘러 싸여진 낙후된 사슴사를 친환경적으로 새단장해 지난 3일 재개장했다.

남유럽에 사는 '다마사슴의 고향'을 콘셉트로 새단장한 사슴사는 기존의 철 조망을 없애고 함정(모트)을 설치해 관 람로와 동물사를 구분했다. 또 바닥을 흙과 돌로 바꿔 친자연적으로 개선했다.

먹이그물 주머니 등을 배치해 동물 들의 무료함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행 동을 유도하는 '행동풍부화 시설'을 늘 려나갈 계획이다.

새 방사장에서는 꽃사슴, 다마사슴, 붉은사슴 등이 함께 지내게 된다.

지난 1992년 문을 연 광주우치동물원 은 2016년 원숭이사를, 지난해 10월 곰 사를 리모델링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 설을 개선하고 있다. /박선강기자



웃음꽃 피우는 어린이들 지난 5일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풍선비전탑 쌓기 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 전남교육청, 1회 추경 2천640억 편성

본예산 대비 5.4% ↑ …늘봄학교 등 반영

전남도교육청이 2천64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 성해 지난 3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1회 추경 으로 올해 총 예산은 본예산 4조9천170 억원보다 5.4% 늘어난 5조1천810억원 이다.

세입 예산안 재원은 중앙정부이전수 입 1천165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761억원, 자체수입 38억원, 전년도 이월 금 676억원 등이다.

중점 과제별 세출 예산은 ▲질문·탄 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398억원 ▲상 다. 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486억원 ▲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120억원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 실천 1 천303억원 등이다.

는 교육생태계 구축, 글로벌 교육 등 역점 과제 추진에도 193억원, 행정기관 운영 및 인건비 등 140억원을 반영했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글로컬 될것"이라고말했다.

미래교육박람회(59억원) ▲전남형 늘 봄학교 안착 및 방과후학교 운영(334억 원)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원 연수 및 환경 구축(207억원) 등에 중점을 두 고 편성했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지역에서 세계 로 나아가는 글로컬 교육을 통해 전남 학생 맞춤형 교육과 지역과 공생하 교육이 추구하는 공생의 교육, 지속가 능한 미래가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며 "오는 29일 개최되는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와 전남형 늘봄학교 안착 등은 새로운 기회를 위한 투자가

## 5·18문학상 본상 김해자 '니들의 시간'

신인상 도형주・박록삼・이정란 영예

5·18기념재단과 계간 문학들, 한국작 가회의가 공동주관하는 '2024년 5·18문학 상'본상과신인상수상작이결정됐다.

6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기성작 가의 단행본을 대상으로 수상작을 뽑 는 본상은 김해자 시인의 시집 '니들의 소설 부문 500만원, 아동문학 부문 300 시간'이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해당 시집에 대해 일상 '광주 5·18정신'을 고유명사를 넘어 보 통명사로 자리매김하게 했다고 평했다. 5·18 문학상 신인상은 시 부분 도형

록삼 '조금만 기다려요', 아동문학 부문 이정란 '그림 동전'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작들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25일 오후 4시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강당 에서 개최되며 본상 수상자에게는 상 패와 상금 2천만원이, 신인상 수상자에 게는 상패와 상금으로 시부문 300만원, 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한편 5·18문학상은 5·18정신을 기리 의 한 부분에서 역사를 바라봄으로써 고 오월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05 년부터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5·18기 념재단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오월정신을 확장하기 위한 오월문학총 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소설 부분 박 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주성학기자



+